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등급제 신설	파리
환경·안전	3	“환경오염 큰 영향 주는 차량에 부담금 부과”	런던
	4	사이버범죄 국가 차원 대응계획 수립	싱가포르
도시교통	6	전동차 1,025대 도입 등 지하철 환경 업그레이드	뉴욕
	8	자율주행 차량 등 교통 신기술 대비 교통전략 채택	멜버른
	11	21세 이하 초보운전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 의무화	뉴저지
정보·기타	12	무인주행차 전용시험장 일부 개장	상하이
뉴스인사이드	15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등급제 신설

6개 등급 구분...오염 적은 차량에 운행·주차 특혜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해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른 등급제(Certificat qualité de l'air)를 신설
 - 등급제는 차량의 대기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6개 등급으로 구분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간주하여 특별 등급인 하늘색 라벨로 표시
 - 차량 등급을 알려주는 스티커는 색상과 숫자로 구별할 수 있으며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



실제 적용될 자동차의 대기오염 등급제 라벨

- 주요 내용
 - 프랑스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도시 내 운행 및 주차 관련 특혜를 제공할 예정
 - 파리市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1등급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을 신설·확장할 예정

- 이 제도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파리시 등 프랑스 주요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음.
 - 파리시는 2017년부터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97년 이전에 생산한 노후화된 디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예정
 - 1등급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제한구역(Zones de circulation restreinte)'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을 통해 등급을 정하지 않고 차종, 연료 종류 및 출고 연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음.
 - 노후화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대개 저소득층이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등급제 시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http://www.auto-moto.com/actualite/environnement/vignette-2016-eco-pastille-certificat-qualite-air-prix-categorie-pollution-49359.html>

<http://www.auto-moto.com/actualite/environnement/la-future-vignette-est-elle-bidon-la-question-qui-fache-42896.html>

환경·안전

“환경오염 큰 영향 주는 차량에 부담금 부과”

영국 런던시 / 환경·안전

- 영국 런던시는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는 차량 중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에 환경오염 부담금을 2017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기존의 LEZ(Low Emission Zone,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를 강화한 ULEZ(Ultra Low Emissions Zone)를 도입할 계획
- 환경오염 부담금의 주요 내용
 - 대상 차량은 Euro 4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대부분임.
 - 이 차량들은 런던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서 혼잡통행료 11.5파운드(16,500원)에 추가로 환경오염 부담금인 10파운드(14,300원)를 더한 총 21.5파운드(30,800원)를 내야 함.
 - 버스나 기타 대형차량은 최대 1,000파운드(143,000원)까지 환경오염 부담금을 내게 될 수도 있음.
- ULEZ의 주요 내용
 - 런던시는 혼잡통행료 부과보다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ULEZ를 2019년에 도입할 예정
 - ULEZ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때 기존 혼잡통행료 외에 승용차와 오토바이에는 650파운드(93만 원), 대형차량에는 500파운드(72만 원)의 환경오염 부담금이 부과됨. 만약 부담금을 4일 이내로 내지 않으면 이 요금의 2배를 부과함.

<https://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

<http://www.citylab.com/commute/2016/07/london-slaps-polluting-vehicles-with-a-very-high-new-charge/490340/>

사이버범죄 국가 차원 대응계획 수립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환경·안전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를 조기에 발견·저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계획(National Cybercrime Action Plan)’을 2016년 7월 발표
- 배경
 -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현행법은 많은 한계가 있어 사이버범죄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
 - 2015년 사이버범죄 발생률은 2014년보다 41% 증가
 -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는 같은 기간 47% 증가
-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원칙
 - 첫째, 예방을 최우선으로 함.
 - 둘째,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
 - 셋째, 강력한 관련 법의 뒷받침
 - 넷째, 사이버범죄 대응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함.
-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전략
 - 첫째,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좀 더 확대된 권한을 부여
 -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 시행
 - 미디어와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 관련 공익광고 시행
 -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로드쇼 실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사기 방지 웹사이트(www.scamalert.sg)를 신용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포털사이트로 통합
 - 둘째, 사이버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역량 증진
 - 경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
 - 민감한 공공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셋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제 강화
 - 해외 사이버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관련법을 개선
 - 사이버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지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

- 넷째, 민간기업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를 항상 경계하도록 권고함.
 -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

<https://www.mha.gov.sg/Newsroom/press-releases/PublishingImages/Pages/Launch-of-the-National-Cybercrime-Action-Plan-at-RSA-Conference-Asia-Pacific-Japan/NCAP%20Document.pdf>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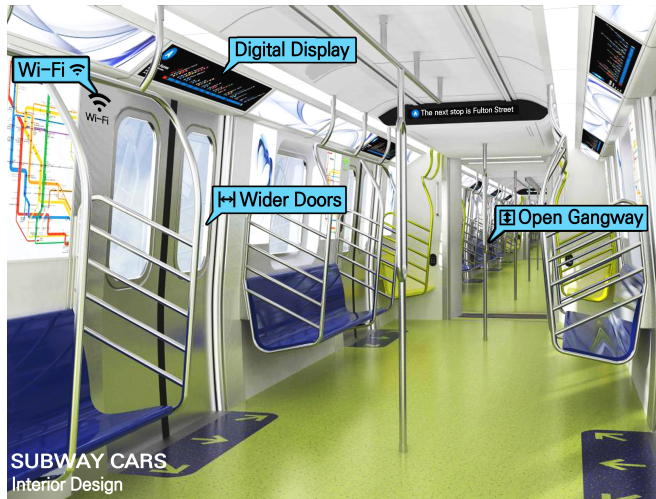
전동차 1,025대 도입 등 지하철 환경 업그레이드

미국 뉴욕시 / 도시교통

- 미국 뉴욕시는 뉴욕교통공사(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새로운 전동차 도입 및 전철역 환경 개선 등의 지하철 현대화(Modernizing the MTA)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음을 2016년 7월에 발표
 - 이 사업은 MTA가 총 270억 달러(30조 원)를 투입하는 5개년 장기건설계획 중 하나임.
- 주요 내용
 - 전동차량 개선
 - 새롭게 디자인된 1,025대의 차량 도입
 - 이 중 최대 750대에는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정차시간도 줄일 수 있는 ‘오픈 카 엔드(Open Car End)’ 디자인을 적용
 - 승객들이 좀 더 빠르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전동차 출입문의 너비를 기존 50인치에서 58인치로 확장
 - 새 차량에는 와이파이(WiFi)와 USB 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 MTA는 2023년까지 모든 노선에 최첨단 전동차를 투입할 예정



개선된 전철역 및 전동차 디자인



개선된 전철역 및 전동차 디자인

- 지하철역 환경개선
 - 낙후된 전철역 31곳의 보수공사를 진행
 - 승객들의 편의시설 강화에 초점을 맞춰 어두침침한 역을 밝게 만들기 위해 역내 조명의 조도를 높이고, 어느 역인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표지판도 변경할 예정
 - 올해는 브루클린에 있는 3개의 역사를 초현대식 시설로 바꾸고, 1년 이내로 나머지 역에 대한 보수공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
 - 보수공사로 인한 역 폐쇄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전철역 시설 개선공사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
- 디자인 빌드 계약
 - MTA는 한 팀이 프로젝트 전체의 디자인과 시공을 책임지는 '디자인 빌드 (Design-build)' 계약을 31개 역에 적용해 공사를 진행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unveils-design-reimagined-mta-subway-cars-and-details-ambitious-plan-enhanc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TA_renderings.pdf

자율주행 차량 등 교통 신기술 대비 교통전략 채택

호주 멜버른市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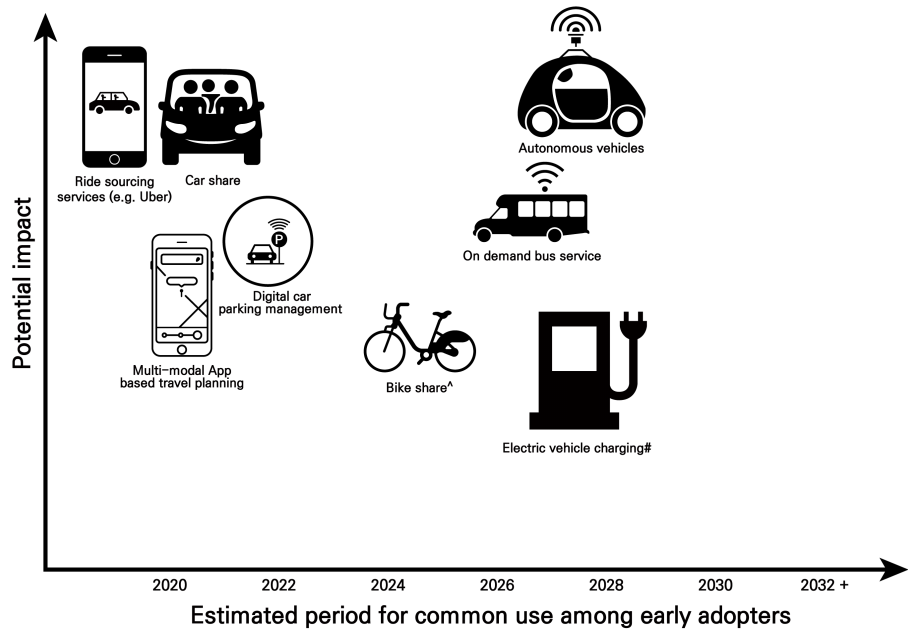
- 호주 멜버른市는 최근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과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에 대비한 교통전략 보고서인 ‘새로이 부상하는 교통 신기술(Emerging Transport Technologies)’을 발표
 - 이 보고서는 교통 신기술의 도입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교통수단의 이용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가 교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과 역할을 제시함.
- 배경 및 목적
 - 교통수단 이용행태의 변화
 - 현대사회의 교통수단은 자동차, 기차, 버스 등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보유율의 감소, 운전면허증 취득 건수 감소, 1인당 자동차 이용 이동 거리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남.
 - 혁신적인 교통기술(Disruptive Transport Technology)의 출현
 - 다양한 교통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들이 가져올 교통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교통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사전 대응조치가 필요
 - 현재와 미래의 교통 신기술의 지형을 파악해 이 기술이 시의 교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시가 담당할 역할과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
- 새로운 교통행태의 출현 및 영향
 - 승차공유제의 확대
 - 멜버른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2014년부터 시행하였음.
 - 승차공유제의 확대로 자동차 보유량 감소 예상
 - 호주는 자동차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인구 1천 명당 568대의 승용차를 보유
 - 자동차의 소유보다는 접근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2035년경 자동차 보유율은 현재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자동차 보유율의 감소와 승차 공유로 주차수요가 감소
-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 줄어들면서 도심 내 장기주차 차량 수가 감소
- 자전거 공유제의 활성화
 - 자전거 공유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임.
 - 교통 신기술의 보편화로 자전거 공유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멜버른시의 자전거 공유제

-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 2020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교통안전과 대기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함.
 - 승차 공유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으로 어린이와 초고령자들의 자동차 이용도 가능
 - 운전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비용(Time Cost)이 줄어들면서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이 때문에 도로에는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교통 신기술 보편화 시기 예측

– 시사점

- 주차장의 수요 감소에 대비해 현행 주차장 부지와 타워형 대형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 교통안전정책에 투입되고 있는 자원을 교통혼잡관리정책으로 이전하는 방안 고려도 필요
-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충전소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고려도 요구됨.
- 스마트폰 및 앱에 기초한 교통행태가 증가하면서 앱 개발업자들과의 협력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신기술 보급현황의 모니터링과 그 수요 및 활용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http://magazine.melbourne.vic.gov.au/city-news/new-transport-technology-around-corner/>

<http://www.melbourne.vic.gov.au/sitecollectiondocuments/emerging-transport-technologies-report.pdf>

<http://www.melbournebikeshare.com.au/gallery>

21세 이하 초보운전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 의무화

미국 뉴저지주 / 도시교통

- 미국 뉴저지주는 21세 이하 초보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에 작고 네모난 붉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 이는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초보운전자가 좀 더 교통규칙을 지키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임.
- 초보운전자 준수사항
 - 21세 이하 초보운전자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을 금지함.
 - 부모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다른 동석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달러(10만 9,600원)의 벌금을 부과



미국 뉴저지주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모습

- 기타사항
 - 2015년 미국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보운전 스티커는 2년간 9.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유발함. 이는 실제로 약 3,200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임.
 - 호주, 인도, 아일랜드는 초보운전자를 의미하는 'L(Learner)' 마크 부착을, 일본은 면허취득 후 1년이 안 된 운전자들에게 '와카바(새싹)' 마크 부착을 의무화함.

<http://www.citylab.com/cityfixer/2016/07/how-japan-saves-lives-with-driver-decals/490484/>

[http://www.ajpmonline.org/article/S0749-3797\(14\)00491-7/abstract](http://www.ajpmonline.org/article/S0749-3797(14)00491-7/abstract)

http://www.state.nj.us/mvc/pdf/Licenses/GDL_Decal_Poster.pdf

정보·기타

무인주행차 전용시험장 일부 개장

중국 상하이市 / 정보·기타

- 중국 상하이市는 2015년 자딩구(嘉定区) 국제자동차타운에 ‘무인주행차 전용시험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1단계로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시험시범구’를 2016년 6월 일부 개장함.
- － 개요
 - 상하이시는 자딩구를 ‘상하이 국제자동차타운’으로 지정하고 아시아 최대 국제 자동차 무역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
 - 시험장은 자동운전이나 무선충전 등 무인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



2016년 6월에 개장된 중국 최초 무인자동차 전용시험장

- － 단계별 사업계획
 - 1단계
 - 1단계는 폐쇄도로 시범구로 부지면적은 5km²이며, 고속도로, 도시도로, 농촌 도로 등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

- 도로, 가로등, 사람, 차량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시스템을 구축
 - 도로 가로등과 신호등 등의 인프라에는 와이파이(WiFi)와 센서를 탑재
 - 주변 차량, 도로 등의 사물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V2X(Vehicle to Everything) 기능을 갖춘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에 29종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
 - 다양한 날씨, 터널·구름다리·교차로 통행 등 86종의 테스트가 가능
- 2단계
 - 부지면적을 27㎢로 확대하고 1천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
 - 2017년 말 완공 예정
 - 3단계
 - 도시종합시험구로 2019년 말 완공 예정
 - 부지면적을 100㎢로 확대하고, 1만 대의 차량이 개방적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안팅(安亭)진에 무인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http://sh.sina.com.cn/news/k/2016-06-08/detail-afxsvenv6892719.shtml>

<http://auto.gasgoo.com/News/2016/06/08091620162060361134931ALL.shtml>

http://www.jfdaily.com/minsheng/new/201604/t20160408_2206758.html

<http://news.mydrivers.com/1/455/455018.htm>

http://www.jiading.gov.cn/zwpd/zwdt/content_211569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중국 상하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청소년 6만 명에 6주간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2016.07.15
- 뉴욕시는 시의 경제 발전과 청소년의 경제활동 기회 마련을 위해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시행함. 뉴욕시에 사는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60,000명을 채용해 10,000곳의 직장에서 6주간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617-16/mayor-de-blasio-council-speaker-mark-viverito-dycd-commissioner-chong-kick-off-summer-youth#/0>

- 아동 정신건강센터 세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2016.07.28
- 뉴욕시는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 전역에 아동 정신건강센터를 신설하고 아동 정신건강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5세 이하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633-16/first-lady-chirlane-mccray-creation-early-childhood-mental-health-network-part-of>

런던

- 초저공해지역 운행 공해발생차량에 추가요금 부과 2016.07.05
- 런던시는 공중보건 개선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발표함. 도심 내 초저공해지역을 지나가는 공해발생 차량에 약 1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및 화물차에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unveils-action-plan-to-battle-toxic-air>

- 유럽 최대규모 생명과학연구시설 조성 2016.07.28
- 런던시는 질환과 질병을 연구하는 유럽 최대규모의 생명과학연구시설을 시내에 조성

함.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 세계 70개국 1,250명의 과학자를 수용하여 생물학과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런던시의 생명과학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추진하도록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declares-london-is-open-for-science>

싱가포르

- 에너지절감 기술투자 포함한 기후상세계획 수립 2016.07.11
- 싱가포르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상세계획을 발표함. 기후상세계획은 탄소배출 감소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투자, 기후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검토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함.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singapore-unveils-plan-in-climate-change-fight>

- 주룡호수지구를 제2 중심업무지구로 만든다 2016.07.12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은 주룡호수지구를 제2의 중심업무지구로 조성하여 자동차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발표함. 또한 지하공간에 혁신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도 연계할 예정임.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masterplan-wanted-for-car-lite-jurong-cbd>

-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에 현금 추가 지원 2016.07.17
- 싱가포르는 9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현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개월마다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함.

<https://www.gov.sg/news/content/the-sunday-times-silver-support-letters-out-from-tomorrow>

- 5년간 830억 원 투자해 제조산업 품질 향상 2016.07.28
- 싱가포르시는 제조산업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함. 향후 5년간 약 830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산업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는 등 미래 제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plan-to-boost-quality-standards-ecosystem>

상 하 이

- 신생아용 특수 구급차 마련 2016.07.08
- 상하이시는 신생아의 안전한 의료 수송을 위해 신생아용 특수 구급차를 마련하기로 함. 현재 호흡기와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의료센터로 이송시키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구급차에 설치해 여성과 어린이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307.html>

- 홍차오 중심업무지구 4개 지하통로 설치 2016.07.12
- 상하이시는 홍차오 중심업무지구 내 근로자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의 지하통로를 설치하기로 함. 4개의 지하통로는 2020년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통로와 건물 통로를 연결해 지상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하통로 연결 지점: 파슨 쇼핑센터, 아치 상하이, 홍차오 티안두 플라자, 소호 텐산 플라자, 더플레이스몰, 르 에비뉴 상하이, 우정백화점 등을 연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372.html>

- 푸톈지구 주거단지에 태양에너지 시스템 도입 2016.07.19
- 상하이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상하이 최초로 푸톈지구 내 주거단지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생산된 태양에너지는 엘리베이터, 램프, 전자스크린 및 공공장소 내 기타 공공시설물에 사용될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444.html>

- 주거지역에 포켓공원 설치 2016.07.30
- 상하이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시내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함. 또한 주거지역에 포켓공원을 설치하여 상하이시 인구 1인당 녹지면적을 9㎡에서 10㎡로 늘리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3574.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